

3 주 - 찬양함

3 주 - 1 일 - 찬양을 의미과 찬양의 제물

시 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기록하시나이다.

시 119:164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다.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의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그 분은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신 분”(시편 22:3)이시다. 그분의 이름과 그 분 자신은 찬송을 통하여 높여지신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루에 세번 기도한다고 말했다. (시 55:17) 그러나 다른 시편에서 하루에 일곱번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다(시 119:164). 다윗은 찬양의 중요함을 깨달았을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그는 하루에 세번 기도했지만 찬양을 일곱번 하였다. 더욱 다윗은 레위 지파들을 명하여 비파와 수금으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였다. (대상 16:4~6)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때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법궤를 운반하였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레위인들은 제단 옆에 서 있었고, 나팔을 불고,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였다.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감이 그분의 집을 덮었다 (대하 5:12~14).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들이었고, 찬양의 제사를 드렸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신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일생을 주님께 찬양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Praising*, Chapter 1, Sec 1)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한다. 다윗은 하루에 일곱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자였다.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것은 좋은 훈련이요, 좋은 공과이며, 또 좋은 영적인 실행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집회에 있을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라도 찬양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일곱번씩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찬양에 관하여는 다윗을 이겨야 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히브리서 13 장에 언급된 찬양의 제사를 가질 수 없다.

찬양을 배우면 배우수록 우리가 얼마나 찬양에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날을 찬양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과, 어제와 그리고 그 전날 하나님을 일곱번 찬양하였을지 모른다. 일주일 전 또 한달 전 주님을 찬양하였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당신 입술이 찬양할 수 없는 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은 당신이 고통 중에 있거나 어둠에 있거나 문제가 있는 날들이다. 어떤 날은 오해와 모함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다. 자기 연민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당신이 아프고, 고통받고, 슬프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럴 때 당신은 찬양보다는 대부분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도 원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찬양할 마음이 없고 찬양할 의도가 없어진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과 기분 안에서는 찬양하기가 합당치 않다고 느끼게 된다. 그럴 때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보좌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이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다만 찬양받을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당신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분은 찬미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에 당신은 단순히 그분을 찬미해야 한다. 당신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당신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당신은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의 찬양이 찬양의 제사가 된다. 당신의 찬양은 살찐 송아지를 드림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고통스럽게 사랑하는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 눈물의 찬양은 찬양의 제물이다. 제물이란 무엇인가. 제물이란 상처, 죽음, 손실, 그리고 희생을 상징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상처 받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 당신은 손실을 통해 괴로워 하며 하나님 앞에 당신을 희생물로 드리고 있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기에 찬양을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찬양의 제물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Praising*, Chapter 1, Section 1)

3 주 - 2 일 - 찬양과 승리

행 16: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대하. 20: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압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제물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찬양이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사탄은 도망간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요점의 이르러야 하는데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기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가장 큰 공격은 찬양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사탄이 기도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사탄은 공격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기도하는 순간 사탄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한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 또한 공격한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이들의 찬양을 막는 것이다. 기도는 전쟁이다. 그러나 찬양은 승리이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지만 찬양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다 사탄은 도망간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찬양을 가장 싫어한다. 그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저지하려 한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이나 좌절되는 느낌을 겪고있을 때 찬양을 멈추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빌립보의 감옥이 찬양의 장소가 된 것 처럼(행 16:25)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의 찬양이 감옥문을 부수어 뜨렸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상황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찬양할 때 당신은 그 상황을 이기게 된다. 당신이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그일에 묶여있을 수 있다. 간구하면 할수록 당신이 여전히 갇히고 눌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옥이나, 사슬이나, 신체적고통이나, 고난이나, 수치스러움에 두시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감옥이나, 수치나,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며 또한 그 감옥에서 간수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많은 순간 기도에 실패 했을 때에도 찬양은 여전히 역사한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이다. 만약 당신이 기도할 수 없다면 왜 찬양하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실 것이다. 당신이 더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상처받았을 때 다만 그분을 찬양하라.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하길 힘쓰라. 우리는 우리의 부담이 무거울 때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부담이 끝났을 때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부담이 너무 무거워 기도할 수 없을 바로 그 때가 찬양할 때라는 것이다. 부담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환경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방황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직 한가지는 “내가 왜 찬양하지 않는가”이다. 여기에 황금과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러할 때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운행하여 모든 감옥문을 열어버리고 모든 사슬을 부숴뜨릴 것이다. (Praising, Chapter 1, Section 2)

역대하 20:20~22 절에 따르면 여기에 한 전쟁이 있다. 유다 민족들이 여호사밧 왕의 통치 아래있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들은 매우 약했다. 모압족속과 압몬족속과 세일산의 백성들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쳐들어 왔다. 유다는 전적으로 공포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은 패배가 분명하다고 여겼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그는 유다를 명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 그럴 때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찬양대를 시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찬양케 하며, 군대들을 전진시키고,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공훈이 영원하십니다.” 이 성경 다음 구절에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였을 때”라는 말에 주위를 기울이고 주목하길 바란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이다. “그들이 노래와 찬양을 시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압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족속들을 치게하시고”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들이 노래와 찬양을 시작한 바로 그 때, 모두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린 바로 그 때, 주님은 압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들을 쳐부수셨다. 찬양만큼 주님의 손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Praising, Chapter 1, Section 3)

3주 - 3일 - 믿음을 산출하는 찬양

시 106:12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은 찬양을 노래했다.

히 13:15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새로 믿는 이들은 자신이 많은 수 년을 지난 뒤에나 찬양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즉시로 찬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이 문제에 당면할 때마다 당신은 은혜를 구하여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버리고 단지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많은 전투는 찬양으로 이길 수 있다. 많은 전투는 찬양의 부족으로 패배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들의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주님께 “주님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모든 것 보다 더 높다. 당신은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 “당신의 인자하심과 인내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는 찬양함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또한 사실이다. (*Praising*, Chapter 1, Section 3)

시편 106:12 은 매우 귀한 말씀이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믿고 /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찬양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했다. 찬양은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당신은 단지 입으로만 찬양할 수 없다. 당신은 빈말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믿어야 한다. 당신이 믿은 다음 찬양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문제들이있고 당신이 슬픔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은 기도한다.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입을 열어 찬양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방식이다. 이것을 가벼운 방식으로 실행하지 말고 기도해야한다. 그러나 조금의 믿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사랑, 영광, 영광의 나타남을 볼 때 찬양을 시작해야 한다. 사람이 믿음을 가진 뒤에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믿음을 안에 가진다면, 당신은 찬양해야 한다. 당신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을 얼마 안되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찬양의 구변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찬양하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음성을 통하여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또 사탄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한다. 당신은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서부터 시작하여 느낌이 있을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또는 당신의 느낌이 작을 때부터 느낌이 충만할 때까지 해야한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약할 때부터 강해질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눈에 가득할 때 당신은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신의 영이 충만될 때 당신은 찬양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것 위에 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볼 때 찬양할 수 있다. 당신이 찬양 한다면 사탄은 도망 할것이다. 때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가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하셨음을 알게된다. 그때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이 찬양을 하기 전에 문제가 끝나기를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즉시 찬양해야한다. 대적이 도망간 후까지 기다렸다가 노래하지 말라. 우리는 노래함으로 그들을 쫓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대적은 패하고 쫓겨갈 것이다.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고 찬양한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Praising*, Chapter 1, Sec. 4)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양을 통하여 상승하게 된다.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취하셨던 길이다. 우리는 동일한 길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시험 위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찬양 할 때 우리는 시험 위에 있게된다. 다른이들이 우리를 더욱 좌절 시킬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일어나 말해야 한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기를 배우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라. 그분의 수종의 일을 배우도록 하라. 찬양의 제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성숙케하고 무르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징계를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다루심을 받을 뿐 아니라 영광으로 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받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투명하고 영광스러운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Praising*, Chapter 1, Sec. 4)

3 주 4 일 -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림- 충만한 찬양

히 2:12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히 13:15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히 13: 15 은 8-14 절의 연속이다. 우리가 교회생활에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리며 그분을 따라 종교 밖으로 나아가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적 제물을 드려야 한다. 첫째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한다. 교회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의 찬송을 부르신다. (2:12) 교회 안에서 우리도 역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한다. 결국 교회 안에서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연합된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 한다. 그분은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한다. 이것은 가장 높고 좋은 제물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집회애가 가장 큰 필요이다. (히 13:15, 각주 1 회복역)

이 문제에서 우리는 그분께 가장 좋은 협력을 드려야 한다. 나는 이미 세 다리로 하는 경주에 대한 예를 들었다. 나의 짝이 지혜롭고 능률적이지만 내가 느리고 무디다면 나는 합당하게 동역할 수 없다. 그는 나로 인해 제한될 것이다. 당신은 항상 그리스도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동반자 이시다. 당신은 그분의 동반자 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동반자 인가? 당신이 집회에 왔을 때 그분이 당신과 함께 찬양을 하려할 때 당신은 그분께 합당한 동역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은 입을 다물고 영을 소멸 시키는가? 만일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에 의하여 감금되신다. 그렇다면 그분이 교회 중에서 어떻게 찬미를 드릴 수 있겠는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영 안에서 찬양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찬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찬양은 빈약하고 내용이 부족할 것이며 높은 찬양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찬양에 대하여 숙고해 보자. 한 면으로 우리의 찬양이 부족하며 다른면으로 우리의 찬양은 그 구변에 있어서 빈약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며 모든 것보다 좋으신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가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경작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모임때 그 분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야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대한 새로운 말들을 구성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체험으로 나온 것으로 찬양하는 것을 실행하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것에 익숙하게 될 것이다. 그런 뒤 당신이 집회에 가서, 당신은 더욱 풍성하고, 높은 말들과 구변과 표현을 갖게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은 우리의 집회를 강화 시키고 높임으로서 확신과 살아있음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실행 하겠는가? (*How to Meet*, Chapter 17, Section 4)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에 참여하고 그분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종교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How to Meet*, Chapter 16, Section 1)

교회는 목장과 같다. 많은 풀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많은 소들이 하루 종일 풀을 먹는다. 소들은 우유를 산출하고 우유에서 찬양에 해당하는 크림을 얻는다. 우리의 찬양이 충분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있어야한다. 우리는 목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목장이 필요하고 우리는 풀도 필요하며 풀을 먹고 우유를 산출하는 소도 필요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찬양의 넘침을 가질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집회에 모여 찬양을 드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당신은 공허하고 바람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분을 매일 체험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달콤함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가득차게 될것이다. 그때 당신은 우유로 충만하고 우유로부터 크림을 얻는 것은 아주 용이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합당하게 모이는 길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충분한 체험을 통해 찬양의 크림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배움의 문제가 아니며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분별된 가르침과 성경적 교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How to Meet*, Chapter 16, Section 3)

3주 -5일 - 찬양이 주된 집회

고전 14:26 :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히 2:12 “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언젠가는 우리의 집회가 집회 시간의 75%를 찬양으로, 나머지 25%를 신언하는 것으로 바뀌기를 주님께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여러분은 찬양시간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찬양시간이 그렇게 많길 바란다.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찬양이 넘쳐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찬양해야 한다. 당신은 묻기를, 먼저 서로 격려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어떨지, 혹은 격려와 권고없이 단지 찬양만 해도 되나요? 라고 반문할런지 모른다. 나는 합당한 찬양은 최상의 권고이며 최상의 격려라고 당신에게 답하고 싶다. 누군가가 서서 나를 권고한다면, 나는 그렇게 깊이 인상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영안에서 찬송으로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주 예수님의 찬송하는 노래가 함께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권고요, 진정한 격려이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세움이나 건축은 찬양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고 합당하게 찬양함으로, 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노래와 함께 찬송하신다면 교회는 놀랍게 격려받고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 14 장 26 절에서 찬송시를 첫번째로 언급한 이유이다. 노래하는 것과 찬양함이 으뜸의 위치에 놓여야 한다. 우리는 교회의 집회들에서 찬양을 첫번째 필요항목으로 여겨야 한다.

히브리서의 앞 부분(2 장 12 절)에서 주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노래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끝 부분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10 장에서는, 우리는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세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찬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마다 말이나 증언이나 신언을 많이 하기 보다는 예수님을 통한 찬양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고린도 전서 14 장 26 절에서 우리가 모일 때 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첫번째 항목이 “찬송시”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집회 중 가장 주된 기능은 찬송시이다. 찬송시는 무엇인가? 찬송시는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집회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찬양함으로 노래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집회에서는 노래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노래하는 데 할애할 필요가 있다. 집회 중 내가 말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있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그저 당신이 노래를 시작해도 된다. 당신의 영이 만져지거나 황홀경 가운데 있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단순히 노래를 시작하면 전체 성도가 따라 노래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5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들로 승천하실 때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 당신은 ~ 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듣지를 않고, 단지 “ 어린 양께서 축복과 영예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라고 외치며 찬양과 찬양을 거듭하였다. 네 생물은 단지 아멘이라고 화답하였다. 우리가 찬양만을 하는 집회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류의 찬양은 당신을 단순히 황홀경안으로 이끌 것이며, 삼층천에 위치하여 모든 것을 당신의 발아래 둘 것이다.

고린도 전서 14 장에서 주된 것은 신언이고, 첫째가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다. 교회 집회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신언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지만, 첫째가는 것은 찬양이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누구나 찬양할 입과 찬양을 위한 찬송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현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 차이 나는지 압니까? 우리는 우리의 출신 배경을 다 내려 놓고, 현 타락한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최초의 길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았으며, 단지 거의 이천년 동안 원래 있었던 것을 지금에서야 찾았을 뿐입니다.

3주-6일-교회 집회들 가운데 찬양함을 실행함

시편 45:1-2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들에 대변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얻으실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원칙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의 해방과 영을 사용함에 의한 것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영을 사용하는 최상의 길은 옛 방식의 긴 기도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 안에서 짧고 살아있는 문장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첫번째로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함으로써 주님 안에서의 매일의 행함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집회들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들에서도 행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훈련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집회들을 이끌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집회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집회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다.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찬양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집회에 오는 길 가운데에서도 집회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는 언제든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형식이나 율법이 아닌 그 영의 어떠한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찬송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간증으로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인도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참여자들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흐름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우리의 입들을 열고 주저없이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찬양함 안에서 좋은 동역을 얻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의 중점들을 지금 언급하고 싶다.

첫번째로 우리는 집회들 가운데서 절대로 독립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여러분들은 영 안에서 세심하고 그 집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한다. 그 집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시작되었다면 다른이들을 따르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라.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집회에 나와 어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문장을 말한 후에, 여러분 자신이 그 흐름 밖에 있다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즉시 멈추어야 하며 그 흐름 안으로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기로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과 의도들을 잊어 버려야 한다. 교회의 집회들은 여러분의 지식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주는 영의 흐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장소인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동역을 위해서는 우리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사용하여 서로를 잘 관심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하였는데 다른 누군가가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즉시 멈추고 다른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다른 이들이 멈춘 후에

여러분은 합당한 방식으로 연결해야 한다.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이 찬양하려고 했던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그 영의 두 느낌들에 모두 세심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 기도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찬양으로 읽을 때, 우리의 구변에 관하여 말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한 방면에서 우리의 기도들과 찬양함을 위하여 말씀 구절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의 신선한 체험들을 그 말씀과 함께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좀더 감동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말씀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편 45 편을 기도로 읽는다고 가정해 보자. 한 형제가 외치기를, “오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 때 또 다른이가 이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넘쳐 흐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다른 누군가가 그 말씀을 그들의 현재의 체험에 적용함으로써 이어 이렇게 외칠 수 있다: “주님, 나는 오늘 당신의 임재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 흐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다만 말씀을 인용하거나 반복하거나 말씀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How to Meet*, p. 247)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다른이들과 함께 보다 더 나은 동역을 얻고 하나님께 최상의 동역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실행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노련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모이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의 집회들은 훨씬 달콤하고 훨씬 풍성하며 훨씬 영감있고, 훨씬 고양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회들은 단지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집회들 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How to Meet*, p. 252)